



# 수필이 있는 풍경 사진



권 영 주 교수  
순천향의대 심장내과

## 상사화의 바람

풍경사진은 빛으로 그린 마음의 화폭이라 할 수 있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속의 의도에 따라 풍경사진은 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투영하여 표현된다. 한 풍경 속에서 여러 작가들이 촬영한 사진들 모두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그 사진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풍경 사진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면서 인간의 붓으로 그리지 못하는 그 사실성 안에서 자연의 진리 그 자체를 느낄 수 있으리라.

애뜻한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상사화군락은 인간의 마음속에 늦여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담아 낸다.

상사화의 풀잎은 봄철에 나오나 풀잎이 시든 후에 8월이 되면 꽃대가 땅속에서 솟아 나와 꽃대 끝에 풍성한 붉은색의 향연을 벌인다.

풀잎과 꽃은 서로 만나지 못하여 그 애뜻한 정을 못 이겨 상사화라고 하며 또한 꽃무릇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랑의 마음을 한 가득 담아내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상사화의 바람이다.



## 단풍의 계절

우리나라의 산하는 가을이 제일 아름답다. 가을이 좋다.

나뭇잎들은 이렇게 말한다. 파란잎으로 지낸 봄과 여름을 지나 이제는 나의 내면에서 뿜어나는 아름다운 색깔로 붓질하여 찬란한 화폭을 그려 낸다.

한 해의 성장과 열매를 거두고 이제 남아있는 나의 남은 힘 없이 늘어지기만 한다. 그러나 나는 자연의 진리에 순응해야 한다. 나의 존재의 의미는 끝나지 않았다.

세상은 아름답다. 진리의 세계는 기쁨으로 가득하다. 빨간, 노랑, 갈색 등 만가지 색깔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의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버리고 나는 별거벗은 몸으로 다시 피어나는 것이다.

나는 우주 진리 속에 살면서 우주 진리 속에서 내일을 기다릴 뿐이다.